

# 방내리 문체부안 - 덕천리 건교부안 '줄다리기'

## “문화재·남산훼손 안된다”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가 개발로 인해 각종 문화재와 불교유적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주남산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받아 노선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자문위원 토론회를 가졌다. 문체부와 건교부 그리고 경주시 추천으로 구성된 17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의장 1명을 빼고 건천면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를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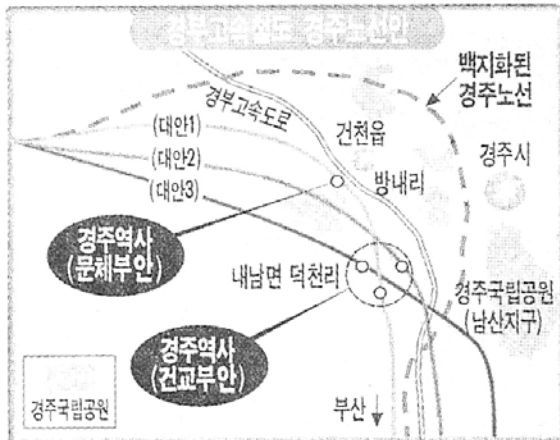
문체부 추천 자문위원들과 건교부와 경주시추천 일부 자문위원들은 건천면 방내리를 지지하고 있다. “고속철도 경주노선

역사를 내남면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주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파괴는 매장문화재 몇 개의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경주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남면 덕천리를 지지하는 자문위원들은 “역사가 들어서도 2차산업 등 인구유입 잠재력이 없는 경주에서는 역세권이 크게 개발될 수 없다. 방내리는 문화재 발굴시간 때문에 공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발굴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내남면 덕천리 일대가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불교계에서는 노선결정권이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울산과의 도로연계를 구상하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남산열을 지나는 내남면 덕천리가

### 경부 고속철 경주역사



완공후 5년후에 경주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 9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 인원의 수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0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에서 덕천리 역사예정지

히 도로로 들어차며, 남산을 따라서 개발될 확률이 높아 남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6월 총리실은 불교계와 학계의 ‘경주 문화재 보존·복구’ 의견을 받아들여 도심통과노선을 백지화해 개발보다는 보존을 지시했다. 그러나 덕천리 역사를 결정할 경우 정부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고고학계의 지난 1일 성명에서도 나타난다. “고속철도 건설에서 발생할 문화재 훼손과 파괴를 공학적·수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에 깊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방내리와 덕천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중간결과 발표(15일) 이후 공청회를 거쳐 12월중 경주노선과 역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 방내리 환경·문화 유적 보존 유리

### 덕천리 울산 연계·비용 절감 이점

## 연말확정... 교계·학계·시민등 '방내리 지지'

은 역사와 문화도시 경주를 개발하고 보존,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역사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내남면 덕천리는 경주의 성산인 남산과 가까이 개발되면 경주 경관을 해치게 된다. 입지가 좁아(65만평) 개발에도 어려운 덕천리보다 2백만평이나 되는 방내리가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관련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고고학회도 건천역사를 지지하고 있다. 고고학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속철도

빌 가능성이 높으며 남산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고속철도 경주역사가 내남면 덕천리에 들어설 경우 역세권 개발과 경주도심·울산방면 도로화장으로 남산의 훼손은 불을 보듯 번하라는 것이 불교계의 의견이다.

역세권 개발과 신도시 조성, 울산과 경주도심 포함 연계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경주남산의 남북과 서쪽으로 도로가 들어서야 한다. 건교부도 고속철도

까지는 직선거리로 2Km 떨어져 있을 뿐이다.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형규씨는 “불교문화의 성지인 경주남산이 차량매연과 소음,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개발로 더 이상 불교성지로서의 면모를 지켜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학과)는 “역사와 경부고속도로로부터 남산까지는 완전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배일공 원웅총무위원장. 이하 진흥회)가 오는 18일 롯데호텔에서 ‘국가와 겨레를 위한 대법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불교계 분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있다.

종단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에 발족한 진흥회는 이번엔 산하 20여개 종단이 모여 국가 삼부요인과 각 정당대표, 정계, 관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대표인사 1백 50여명을 초청해 조찬형식으로 각 종단지도자를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종단협은 지난 5일 종단협산하 각종단 총무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진흥회는 입의단체로 이번 조찬법회는 종단협과 무관하다”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법회동참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종단협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

를 비롯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정당 비서실장에게도 발송해 정치권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종단협이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흥회가 종단협산하에 있는 일부종

석이다. 실제로 조계종이 종단협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종단협소속 일부종단이 모여 대규모법회를 준비하는 것은 조계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교계의 내용은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호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심계안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던 조계종을 견제하는등에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진흥회 조찬법회에 여당의 당직자가 깊숙히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흥회 회장 배일공스님은 “진흥회는 순수한 친목단체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며 “나리를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하는데 도와 주지는 않으면서 참석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종단협과 진흥회가 정치권을 동원한 기원법회를 앞두고 광범히 맞서고있어 향후 불교계 지각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엽 기자

## 종단협 '조찬법회' 사고 갈등 표출

진흥회, 18일 각계대표 초청 '국가위한 대법회' 봉행

종단협, “불교계 분열 조장” 참석만류 공문 띄워 저지

단의 모임으로 종단협과 협의없이 대규모 법회를 진행하기 때문. 종단협은 진흥회가 추진중인 이번 법회에 대해 “불교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종단협의 활동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종단과 정치권에 전달된 종단협입장은 사실상 조계종의 입장이라는 분

조계종과 진흥회의 갈등은 이미 지난 10월30일 종단협 정기이사회에서 불거졌었다. 이 자리에서 종단협 회장 일주스님은 “진흥회라는 또다른 단체 결성은 불교계를 분열하는 것이다”며 해체를 요구했고 진흥회 측은 “친목단체인 진흥회 결성은 그동안 조계종의 특주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 시론

### 젓은 쓰레기 대책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금지 문제로 매립지 운영과 당국의 정책은 쓰레기통 수거 놓은 것처럼 또 한번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젓은 쓰레기를 체에 받쳐 물기를 쥘다, 양파껍이나 스티킨에 담아 물기를 뺀다, 배란대에 내다말린다 등 아이디어를 짜내는 주부를 노려이 진지한 것 같은데, 웬지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 여성들의 문제인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젓은 쓰레기 반입 금지지를 그 동안 수차례 예고한 이유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시설이 잘못되어 침출수 처리 용량은 턱없이 모자랐다. 참기 어려운 냄새에다 쓰레기 썩은 물이 흘러넘쳐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

키고, 매립지 앞바다를 시화호보다 훨씬 심하게 오염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당국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계속 아무 반응도 없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침출수의 주범으로 지목된 젓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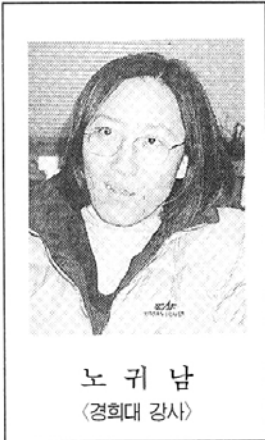
그러나 쓰레기 대책의 근본 문제들은 접어두고, 청소차에 물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주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당국은 지금의 조치가 성급하고 불편하더라도 ‘환경 문제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이라는 식이다. 매립지에 비한 한 번 오면 헛일이 되고 말 노력을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숙하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문제가 식당 주인과 주부들의 노력으로 풀 일이며, 또 매립지 침출수가 약간 줄어든다고 해결되었는가. 만약 국를 처리로 해결될 것 같으면 너무나 한낱 짜듯 쓰레기를 짤 배보자기를 마련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젓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파동도 총체적인 환경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주로 여성들의 노력과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울



노귀남 (경희대 강사)

#### 환경문제 최우선 과제

지구 생태계는 과학적인 쓰레기 처리와 오염 방지책, 완벽한 하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해도 대안이 못 되는 고갈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판에 당국은 대책도 없이 국물을 짜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이제, 환경 문제는 최우선 국책으로 삼아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사회 생활에서 갈등과 고통을 만드는 가치체계를 반성해 봐야 하는 철학적인 숙제이다. 부처님의 의식주 생활정신을 거울삼아 자본주의적 물질기치 중심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생산과 소비체계를 찾아 보면 어떨까?

###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

94년 불교자주화를 향한 뜨거운 외침!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아직도 각종 불교관계법령과 제도가 불교발전을 가로막은 채 향락·위락시설이 환경을 파괴하며 수행관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가 나와 이웃, 자연, 사회, 민족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 11월 22일 조계사 결의대회!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 일 시 : 11월 2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조 계 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 관 : 전국 교구본사